

S-Oil, 김선동 대표이사 회장 재선임

3월28일 정기주주총회, 노연상 영업사장도 ... 사외이사 3명도 선임

S-Oil은 3월28일 서울 63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사 임기가 만료된 김선동 대표이사 회장과 노연상 영업담당 사장을 재선임했다고 발표했다.

또 사외이사에는 장세원 전 안진회계법인 부회장과 알-후메이드 전 Aramco 부사장이 재선임되고, 조장연 외국어대 교수는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됐다.

주주총회에서는 이밖에 이사 보수한도를 25억원에서 35억원으로 늘리는 안건과 재무제표 승인안건 등이 통과됐다.

<화학저널 2005/03/29>